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 기금 약정/납부 현황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반석회	2,000	28	박병태	1,200	55	염기선	3,000	82	임영자	1,000
2	이스트브론스윅 구역	1,167	29	박재영	1,500	56	오경숙	3,000	83	장수지	1,000
3	유스그룹	400	30	박정훈	1,500	57	오석미	1,000	84	장종현	400
4	성모회	5,000	31	박화성	1,000	58	오용운	2,000	85	전광수	1,000
5	Vesta-Oh LLC	5,000	32	방숙자	400	59	오현주 (부제님)	12,000	86	정명숙	300
6	강식	1,200	33	배인경	500	60	우성현	1,000	87	정진오	1,000
7	곽신규	1,000	34	백상현	1,500	61	우영인	1,000	88	조순자	300
8	곽율리안나	200	35	백영숙	1,000	62	유병기	3,000	89	조인	1,000
9	김도용	500	36	변상민	1,000	63	육순재	3,000	90	채희백	5,000
10	김삼식	1,000	37	변상원	1,000	64	윤석로 (부제님)	1,000	91	최영옥	1,000
11	김성일	1,500	38	변태용	4,000	65	윤준희	5,000	92	최영찬	2,000
12	김수완	5,000	39	서경호	1,000	66	이광호	3,000	93	최원준	1,000
13	김순옥	1,000	40	서정근	1,500	67	이기순	500	94	최승웅 (부제님)	5,000
14	김안나	1,000	41	성낙순	500	68	이막동	500	95	최진호	1,000
15	김영필	2,000	42	성낙철	1,000	69	이문식	1,000	96	최현지	2,000
16	김정숙	300	43	성순영	500	70	이보현	1,000	97	추승호	1,000
17	김태경	600	44	성준엽	1,000	71	이성문	1,000	98	토레스 은식	2,000
18	김진	1,000	45	손경진	300	72	이용문	2,000	99	하건철	1,000
19	나채국	1,000	46	손영렬	1,000	73	이용범 (신부님)	2,500	100	한상철	1,000
20	나한복	1,000	47	손영수	1,000	74	이재구	1,000	101	한크리스토퍼	1,000
21	문형곤	100	48	손종철	3,000	75	이재서	1,000	102	허중	1,000
22	민병집	2,400	49	손흥구	1,500	76	이종권	1,500	103	황분숙	500
23	박규희	300	50	신준호	1,200	77	이준원	100	104	황태진	1,000
24	박기호	1,000	51	안을봉	1,000	78	이호용	1,000	105	익명 (1)	1,000
25	박덕화	500	52	안청자	500	79	임문수	500	106	익명 (1)	100
26	박동준	300	53	안현정	1,500	80	임성주	1,000	107	익명 (2)	20
27	박락준	2,000	54	양영길	1,000	81	임소라	100	108	미국신자 (63)	93,900
약정금액: \$247,307.43/\$300,000 (82.44%) , 납부금액: \$182,035.43/\$300,000 (60.68%)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2025년
11월 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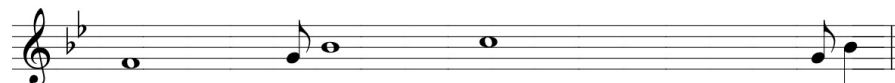
OUR LADY OF MERCY PARISH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지혜서 3,1-9

화답송 시편 116(114—115),5-6,10-11,15와 16ㄱㄴㄷ(© 9)



후렴.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독서 로마서 5,17-21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 11,25-30

성가 입당 227 봉헌 213, 342 성체 169, 188 파견 27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준혁(베드로) - 최정인(아네스)
- 전기현(요셉) - 유병기(베네딕도)
- 허 복(요한) - 가족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 영원한 도움의 Pr.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김인자(로마나) - 가족, 노스브런스워구역
- 체키오 주교님 - 주일학교
- 이마이클과 김정선(스텔라)의 건강회복 - 최레지나
- 한종매(안나)의 건강회복 - 조현실(테오도라)
- 노스브런스워 구역원 가정을 위하여 - 변인순(엘리사벳)
- 최부제님
- 윤안젤라
- 채미영(데레사)
- 박덕화(요안나)
- 향요세피나 가정을 위하여 - 정데레사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255(141명)
- 교무금.....\$1,825
- 윤준희(9) 김수잔(9~10) 이광호(11~12) 채희백(11~12)
- 임문수(11) 최완준(10~12) 이막동(10~12) 임안나(10~12)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 쓰레기,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때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세요.
- 성당 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빵과 포도주 봉헌

- 11/2 채바오로, 채데레사 11/9 최율리안나, 땡베로니카
- 11/16 오클레어, 김스텔라 11/23 최안토니아, 땡베로니카
- 11/30. 최안토니아, 김안나

★ 친교 봉사 일정

-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워 1/18 렛저스 2/15 먼로
-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워 5/17 썸머셋
-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의

★ <성모회> 핫고구마 / 단감 주문하신 분들은 미사전후에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미사후 (11/2) 교구묘지 방문이 있습니다.

★ 써머셋 구역모임

- 일시/장소: 11월 2일 (첫째주일) / 루이지스 피자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11월 9일 미사후 / 지하 대회의실

★ 노스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장소: 11월9일 (주일) 미사 후 / 친교실

★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장소: 11/16일 미사후 / 친교실(예비자 교리실)

★ 레지오 마리아에 ”시화전“

- 주제: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
- 일시/장소: 11월16일(주일) / 친교실
- 작품: 레지오 행동및 협조단원

★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 방법 : 우편 또는 이러닌(동영상 강의) 중 선택
- 접수/마감 : uus.pauline.or.kr / 2026년 1월31일

★ 요셉회와 함께하는 2026년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단 모집

- 일시: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4박5일
- 지도신부: 본당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 문의: 곽 엘리사벳(908-420-8386), 이서형 요안나(732-609-2904)



<< 과달루페의 성모 >>

★ 제1독서 지혜서 3,1-9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로마서 5,17-21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총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총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오 11,25-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1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 위령 성월 기도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